

**광주·전남
당선자 20명
의정활동 각오**



18대 총선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광주 서구갑 조영택 후보자(왼쪽)와 서구을 김영진 후보(가운데), 남구 강운태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환하게 웃고 있다. 지지자들의 얼굴에도 기쁜 표정이 역력하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정권 되찾을 힘있는 야당 재건에 온 힘

박주선(민주당 광주 동구)

호남 정치 1번지 광주와 동구의 명예, 그리고 호남의 자존심을 걸고 5년 후에 반드시 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 있는 대안야당을 건설하는데 온몸을 던지겠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차지구간 경계조정, 도심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도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서민의 편에 서서 서민의 아픔 살피겠다

조영택(민주당 광주 서구갑)

서민의 편에 서서 서민의 아픔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국정운영을 견제하는 방책이 되고, 지역의 이익을 지키고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비롯 광주와 서구의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초선처럼 뛰는 5선, 민생 일꾼 되겠다

김영진(민주당 광주 서구을)

이제 5선이지만, 마음만은 초선이라는 생각으로 오직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끌고 민생을 살피는 일꾼의 역할을 다 할 생각이다. 또 중진으로서 역할이 주어진다면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물론 차지단체장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지역의 핵심과 공동발전의 기틀을 만드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

무너진 평화·민주·개혁세력 부활에 앞장

강운태(무소속 광주 남구)

봉사·책임·섬김의 정치를 통해 광주와 남구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무너진 평화·민주·개혁세력의 부활에 앞장서겠다. 지난 10여 년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고립과 파탄의 위기에 처한 광주를 되살리겠다. 믿음으로 보답하는 책임있는 일꾼이 되겠다.

이명박 정부 독선 막는 데 온 몸 던지겠다

강기정(민주당 광주 북갑)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5년 후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기반을 닦는데 선봉에 서겠다. 아울러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립도서관 광주부관 유치, 각화동 농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등 광주와 북구발전을 위해 제시한 공약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

서민들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정치 펼칠 터

김재균(민주당 광주 북을)

민주주의와 지방 자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시의원, 북구 청장 시절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기득권 세력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이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삶 찾는 정치를 펼치겠다. 그들의 아픔을 이루만지고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챙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는, 광주의 대표 일꾼이 되겠다.

군 비행장 이전 광산 구민 5만명 숙원 풀겠다

김동철(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명박 정부에 맞서 강력한 야당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면서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호남 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위해 온 몸을 던지겠다. 아울러 군 비행장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광산 지역 5만여명의 숙원을 푸는데 적극 나서겠다.

낙후 광주·광산 발전 10대 현안사업 실현

이용섭(민주당 광주 광산을)

선거운동 기간 접했던 광산 구민들의 목소리를 반영, 지역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호남 출대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그동안 제시했던 3대 국정공약을 비롯, 낙후된 광주와 광산 발전을 위한 4대 지역공약, 10대 현안 사업 등에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나간다.

민주당에 꼭 돌아가 민주평화세력 결집

박지원(무소속 목포)

기필코 통합민주당으로 돌아가 강력하고 능력 있는 야당을 만들겠다. 오만과 독선으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견제세력으로 민주 평화세력의 결집체 건설에 나서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민주평화세력이 지난 50년간 지켜온 정통성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혁신정책, 생 산적 복지정책을 이어가고 목표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

국제환경정책상회의 서울·여수 유치 혼신

김성곤(민주당 여수갑)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친환경 해양박람회로 만들어가겠다. 이를 위해 '지구온난화 방지법'을 제정하고, 국제 환경정책상회의를 서울·여수에서 개최하며, 신재생에너지산업과 해양 관광포조산업을 유통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겠다. 지역 현안 사업인 호남고속철의 조기 완공, 여수 EXPO 성공적 개최, 서남해안 개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엑스포 성공 개최 여수 국제도시 도약 쇄신

주승용(민주당 여수을)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여수시의 21세기형 국제 해양관광도시 도약을 우선 목표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SOC와 숙박시설 등 박람회 관련 직·간접 시설의 확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야당 의원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순천·전남 동부권 새 도약 견인 하겠다

서갑원(민주당 순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강력한 대안 야당을 건설하는데 힘을 보태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민생 정치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펼칠 생각이다. 또 순천을 비롯, 전남 동부권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순천과 동부권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견인자 역할을 하겠다.

중도개혁정책 실현 입법활동 최우선 목표

최인기(민주당 나주·화순)

선거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다짐했던 지역발전, 농업회생 등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실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특히 민주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농민과 서민, 그리고 중산층을 특별히 보호하고 배려하는 중도개혁정책의 실현을 입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다.

광양항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배후부지 개발

우윤근(민주당 광양)

건전한 비판과 민생을 쟁기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이다. 조선소를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힘을 다하겠다. 특히 공과대학 유치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겠다. 광양항 자립항만 육성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함께 항만 배후부지 개발을 통한 기업유치를 추진하겠다.

특권층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 정책 막을 것

김효석(민주당 담양·곡성·구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와 의료보험 민영화 등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막겠다. 대학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추진 등 99%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지역 현안 사업인 호남고속철의 조기 완공, 여수 EXPO 성공적 개최, 서남해안 개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등 국책사업 추진

박상천(민주당 고흥·보성)

18대 국회에 임하여 먼저 두 가지 일을 해내겠다. 첫째, 한나라당 1당 독주체제를 저지하고 농어민·도시서민·소상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실현시켜 나가겠다. 둘째, 보성의 국도 29호선 확장 공사와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설치공사 등 보성·고흥의 대형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장흥·강진·영암 공동발전 프로젝트 추진

유선호(민주당 장흥·강진·영암)

강력한 야당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과 반통일 정책 등을 견제 감시하고, 민주정부가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성과를 지켜내겠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장흥, 강진, 영암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3개군 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 해양관광레저도시 정부 지원 이끌터

김영록(무소속 해남·완도·진도)

농어업인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가 소득안정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득보전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겠다. 축산 농가와 축양 어민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특히 해남은 대표적인 해양관광레저도시로 육성하고 진도에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촌을 건설하도록 하겠다.

황소처럼 일하며 갈라진 지역 민심 봉합

이윤석(무소속 무안·신안)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당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듣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또 초심으로 돌아가 황소처럼 열심히 일하며, 하늘과 같은 지역민들의 뜻을 받들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선거로 인해 갈라진 지역 민심을 보듬고, 지역통합을 위해 매진하겠다.

농진청 존치·한·미 FTA 졸속 체결 막겠다

이낙연(민주당 함평·영광·장성)

한·미 FTA가 졸속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농업진흥청이 존치되도록 애쓰겠다. 서남해안 일주도로와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 등 지역 기반시설의 확충에 힘쓰겠다. 지역공약인 함평 산업단지 조성과 한우특구 지정, 영광 조선소 완성과 산업단지 조성, 강성 국립심혈관센터 유치와 개발촉진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09년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완전폐지

• 2009년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완전폐지

• 2009년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완전폐지